

'25년 수원 ITS 아태총회 성공개최 본격 준비

- 9월 1일 첫 회의에서 추진계획 및 홍보방안 논의

- 한국 ITS가 미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예정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9월 1일(금)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“2025년 수원 ITS 아태총회* 실무 추진위원회(T/F) 킥오프 회의”를 열고 아태총회 성공준비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및 홍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.

* 아시아-태평양 지역의 ITS 회원국 간 협력을 확대하고 민·관의 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,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세미나·기술 전시회

○ ITS 아태총회는 '96년 일본 도쿄에서 시작해 아태지역의 첨단교통 분야 기술 교류, 시장동향 파악, 국가 및 기업 간 협력 강화 등을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, 한국은 '02년 제5회 서울 ITS 아태총회 이후 '25년 제20회 수원 ITS 아태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.

□ 실무 추진위원회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수원 ITS 아태총회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 국토부, 수원시, ITS 협회,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례 회의를 개최하여 종합계획 수립, 국내·외 홍보 강화 방안 및 향후 조직 위원회 설립 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.

○ 특히, 작년 9월 유치에 성공한 '26년 강릉 ITS 세계총회와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두 총회의 연계 프로그램 및 코리안 패키지 티켓 등 연속 참여 개인과 기업을 위한 혜택 방안을 마련하여 두 개의 국제행사가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“ '25년 수원 ITS 아태총회의 성공 개최를 통해 국내 ITS 산업은 한 걸음 더 도약하고, 우리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도로국 디지털도로팀	책임자	팀 장	김상민	(044-201-4130)
		담당자	사무관	장유진	(044-201-3928)
			주무관	김강산	(044-201-3935)

1. ITS 아태총회 개요

- 아태 지역 ITS 회원국간 협력을 확대하고 민·관의 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,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세미나
 - '96년 제1회 일본(도쿄) 총회를 시작으로 ITS AP 국가 대상 매년 개최
 - * ITS 세계총회가 아태지역에서 열리는 해는 제외, 한국은 2002년 제5회 아태총회 개최(서울)

2. 유치 추진 배경

- 한국 ITS 기술 홍보 및 아태지역 협력 네트워킹을 강화하여, 세계 ITS 시장 선도 국가로서의 위상 제고

'25년 수원 ITS 아태총회 개요

- (일시) 2025년 5월 12일(월) ~ 14일(수) / 3일간 (예정)
- (주최) 국토교통부 & 수원시
- (주관) ITS 아태총회 조직위원회
- (주제) 'Hyper-Connected Cities by ITS' (ITS가 제시하는 초연결 도시)
- (구성) 고위급회의, 학술세션, 전시회, 기술시연, 기술시찰, 비즈니스 상담회 등
- (참가) 20개국, 2,500명, 50개 기관, 100부스 (예상)

3. 유치 추진 경과

- ('23.1~'23.2) 유치 후보도시 공모 및 후보도시 수원선정
- ('23.3) 수원 ITS 아태총회 유치의향서 제출
- ('23.4) ITS BOD 대상 유치활동 및 '25년 아태총회 개최도시 선정(한국 수원)

4. 향후 계획

- ITS 국제행사에 참석하여 수원 아태총회 홍보 (~'25)
 - * '23년 하반기 홍보활동 계획 : ITS 국제세미나(9월), 쑤저우 ITS 세계총회(10월), ITS 학회 학술대회(11월) 등